

고흥군, 청년 머무는 '산업단지 기반' 조성한다

산자부 산단환경조성 공모 선정 국비 80억 확보... 총 116억 투입 청정식품단지 경쟁력 강화 기반 청년문화센터·거리 플러스 조성

전라남도 고흥군이 청년이 머물고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공모에서 동강면 청정식품단지가 최종 선정돼 국비 8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고흥군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로, 특히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정식품단지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청년문화센터 신축과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청년들이 찾아와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매력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새롭게 조성될 청년문화센터는 총 803.7㎡ 규모로, 카페, 회의실, 주거형 기숙사 등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이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청년 인구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1.5km 구간에 스마트 가로등 설치, 우산 없는 거리 조성, 노후 경관 정비, 보행환경 개선, 휴게 공간 확충 등을 포함한다. 산업단지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



고흥군이 산자부 산단환경조성 공모에 선정돼 국비 80억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청정식품단지 조감도. **고흥군 제공**

침이다.

이번 사업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80억원, 지방비 36억 6000만원 등 총 116억 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흥군은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속한 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우리군 산업단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더불어 청년이 찾아오는 고흥, 기업이 머무르는 고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맞춤형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여수시,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오늘부터 31일까지 실시

전라남도 여수시는 광견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 보호를 위해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5년 봄철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광견병은 주로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며, 반려동물 감염 후 보호자에게도 전염이 가능한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매년 1회 광견병 예방백신이 보강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이번 접종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건강한 반려견과 반려묘가 대상이다. 다만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접종이 가능하다.

여수시는 총 800두 분량의 광견병 백신을 공급하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동의 경우 지정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접종비용 5000원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읍면지역은 공수의가 직접 순회 접종하거나 보호자가 공수의 동물병원에 내원해 접종받을 수 있으며, 공수의 접종분에 한해 시술비가 면제된다.

광견병 예방접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반려동물팀(061-659-2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지역사회의 공중보건을 위해 접종이 필요하다"며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군, 작은공연예술제 개최 9~10일, 문화예술회관 등지서

전라남도 장흥군은 공연장 협력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첫 번째 문화행사로 '제2회 작은공연예술제'를 오는 9일과 10일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및 중앙광장 무대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제2회 작은공연예술제는 전라남도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기획 축제다.

행사 주관 단체인 극예술창작집단 '흥'은 장흥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협력단체로서, 매년 우리 지역만의 문화 자원을 소재로 공연을 기획해 창작 작품 등 장흥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작은공연예술제'는 소극장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색다른 문화향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메인공연으로 진행되는 극예술창작집단 흥의 연극 '길 위에 서서'는 장흥을 살아가는 40대 50대 중년들의 이야기를 장흥 예술가들이 각자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에피소드 연극이다.

관람료는 전석 1000원이며 사전예매(010-8538-5824) 및 당일 현장예매가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문화예술회관(061-860-5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번 공연을 계기로 군민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진환 기자



'2025 순천마을스테이' 예비 마을호스트 모집

전라남도 순천시가 지역 마을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 순천마을스테이 예비 마을호스트'를 모집한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마을스테이'는 머무는 여행을 넘어 '삶을 체험하는 여행'을 지향하는 순천형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마을호스트'는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로컬 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투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사업체다.

모집 대상은 순천시 원도심,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 권역 내 숙박업소로, 마을 여행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곳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약 30개소를 예비 마을호스트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숙소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2025 순천 로컬여행주간'에 참여해 숙박과 로컬 프로그램을 연계한 스테이형 여행상품을 운영하게 된다. 순천시 및 순천마을스테이 플랫폼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웰컴 기프트 및 현판 제공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숙소개선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약 30개소의 예비 마을호스트 중 교육과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소 내외의 숙소를 공식 운영 주제로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네이버 설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과 순천마을스테이 공식 누리집(www.shilang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2일 오후 2시에는 순천생태비즈니센터 3층에서 사업의 취지와 세부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오프라인 안내도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3일 보성녹차마라톤대회에서 전국 마라토너들이 뛰고 있다. **보성군 제공**

제20회 보성녹차마라톤, 전국 마라토너 1만명 집결

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3일 1만여명의 전국 동호인 마라토너와 군민들이 참여한 제20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제48회 보성통합대축제와 함께 개최된 이번 대회는 보성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보성군마라톤연합회,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했다.

올해 풀, 하프, 10km, 5km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된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20년

의 전통을 지닌 전국 규모 대회로, 보성강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완만한 경사 덕분에 마라톤 동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케냐 국적의 전문 마라토너들이 페이스메이커로 참여하고, 김철우 보성군수와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및 주요 내빈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또 전설의 마라토너 이봉주를 비롯한 방송인들과 배우 송일국 및 아들인 대한, 민국, 만세가 함께 달려 대회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번 대회에서는 코스별 1위부터 5위까지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됐으며 풀코스 남자 부문에서는 심진석씨가 2시간31분20초92, 여자 부문에서는 이정숙씨가 3시간11분28초90의 기록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광양시,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최대 90% 구입비용 지원 오늘부터 6월23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광양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025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을 7일부터 오는 6월23일까지 접수한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시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의사소통, 정보 이용, 학

습, 직업 활동 등을 돕는 고가의 맞춤형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국가사업으로, 장애인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광양시는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이자를 대상으로 기기를 보급할 방침이다.

올해 보급 대상은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등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이자이며, 지원 품목은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130개 기종이다.

일반 신청자는 제품 가격의 80%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은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광양시청 디지털정보과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급 대상자는 관련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결과는 오는 7월17일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